

主要先進國의 設備投資現況과 投資促進策

李 成 洙

<韓國銀行調查部海外調査課>

I. 머 리 말

世界景氣의 回復은 1975年初부터 확실한 回復勢를 보여 왔으나 先進諸國의 景氣는 各國에서 緊縮基調가 유지되는 가운데 1976年 여름初부터 下降하기 시작하였고 1977年 上半期에 들어 와서 도 대부분의 先進國들의 經濟成長은 年初豫測值에 未達하였다. 금반 景氣回復勢의 鈍化持續은 主要先進國의 民間消費 및 設備投資등 國內最終需要의 自律的 回復力이 弱화된 때문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設備投資의 回復이 과거의 景氣回復期에 비해 현저히 遲延되고 있다는 것이 主要先進國의 共通問題이다.

그 위에 設備投資가 갖는 生産效果라는 點에서 보아도 主要先進國이 당면하고 있는 設備投資停滯는 今後의 供給力不足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本稿는 主要先進國의 設備投資現況을 概觀, 그 停滯要因을 究明하고 이에 관련하여 各國은 어떠한 投資促進策을 實施하였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美國經濟에 있어서의 設備投資現況과 停滯要因

1975년 1·4 분기를 分岐點으로 하여 回復局面에 들어 섰던 美國經濟는 지난 해 여름 景氣回復勢가 一時 주춤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回復勢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금

년 1·4 분기중에는 年初 異常寒波로 인하여 1月中 生産活動이 萎縮되는 起伏을 보였으나 民間消費支出의 急伸張에 힘입어 7.5%의 예상외로 높은 成長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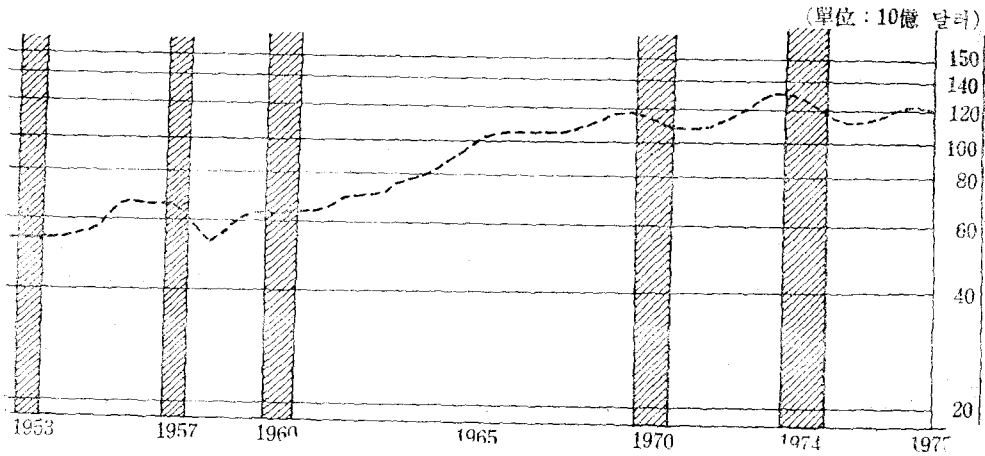
지금까지 美國經濟의 回復은 주로 民間消費支出과 在庫增大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으로 이러한 回復勢가 今後 과연 成長의 지속적 主要因인 設備投資의 回復에 의하여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年餘의 긴 不況에서 벗어난 美國經濟가 長期的으로 확실한 成長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歸結된다고 하겠다.

1. 美國에서의 設備投資現況

1977년 1·4 분기중 設備投資(季節變動調整, 不變, 年率)는 1,223 億달러로 前期比 年率 15%의 상당히 높은 增加率을 보였는데 이는 施設投資가 一部産業 특히 自動車部門을 중심으로 年率 28%나 增大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分期中 構築物投資는 주로 年初異常寒波의 영향으로 극히 不振하여 前期比 年率 11%가 減少하였다.

이와 같은 設備投資動向을 GNP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今年 1·4 분기중 設備投資의 對 GNP 比重은 9.7%로 前年에 비하여 0.2%포인트 높아졌으나 1974년의 10.6% 그리고 과거 25년간 設備投資의 GNP에 대한 平均比重인 9.8%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과거의 景氣回復과 景氣下降局面에서 보여 주었던 設備投資의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의 景氣回復局面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設備投資活動이 상당히 不振함을 알 수 있다.



註: ① 表示는 不況期
 ② 單位는 年率, 1972年 不變價格基準

<그림-1> 美國의 設備投資의 推移

즉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景氣循環局面에서 設備投資는 景氣가 回復되기 시작하여 즉 景氣下降의 最低點에서 2년을 경과하면 대체로 前期의 景氣피크에서 보여 주었던 設備投資規模를 크게 上廻하든가 또는 적어도 1959~60년의 推移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以前의 設備投資 피크에 도달하는데 1975년 이후의 경우 設備投資는 아직도 前期의 景氣好況局面에서 나타난 設備投資規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設備投資의 不振要因

一般的으로 設備投資는 一次的으로 設備投資 코스트와 製品價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利潤性 그리고 企業의 遊休施設保有 有無 등에 關係하여 결정되며 이에 더하여 社會的·政治的 測面에서 諸要因이 複合的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經濟的 측면과 政策의 不確實性面에서 그간의 設備投資가 不振하였던 要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遊休施設의 尙存

美聯邦銀行의 調査에 의하면 1977년 1·4 분기 중 全製造業의 稼動率은 景氣의 最低點이었던 1975년 1·4 분기의 71%에 비하여 크게 提高되었으나 1976年末 85%에는 미치지 못한 82%였는바 이는 현재의 稼動率下에서는 일반적으로 企業이 遊休施設을 保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企業은 最終需要가 실질적으로

크게 增加하지 않는 한 設備를 擴張하려는 意圖가 적다고 하겠다.

2) 企業利潤의 鈍化

設備投資를 결정하는 또하나의 主要因인 企業利潤(租稅控除後)이 지난 1974년 이후 完만하나마 계속 증대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伸張勢가 크게 鈍化되었고 특히 在庫評價와 減價 上각을 감안한 企業利潤은 감소하였다.

즉 금년 1·4 분기중 企業利潤은 經常價格으로 前期比 불과 1%밖에 증가하지 못하였고 不變價格으로는 前期比 水準을 약간 下廻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企業利潤을 在庫評價와 減價 償却을 勘案하여 살펴보면 1976년 1·4~3·4 분기 중에는 증가하였으나 4·4 분기부터는 계속 감소하여 1977년 1·4 분기중 企業利潤은 1976년 1·4 분기중의 수준을 약간 下廻하였다.

이와 같은 企業利潤의 鈍化는 무엇보다도 設備投資費用과 製品價格과의 관계가 惡化된데 기인한 것이다. 즉 1960年代와 1970年代初에 걸쳐서 固定投資費用과 非農業部門製品價格은 대체로 그 軌를 같이 하면서 변동하여 왔다. 그러나 1975년에 들어 와서는 그 양상이 변하여 固定投資費用이 13.9% 上昇한 반면 企業製品의 價格은 10.2% 上昇에 머물러 企業의 利潤鈍化를 가져 왔다(<表-1> 참조).

한편 이와 같은 投入費用과 價格과의 比率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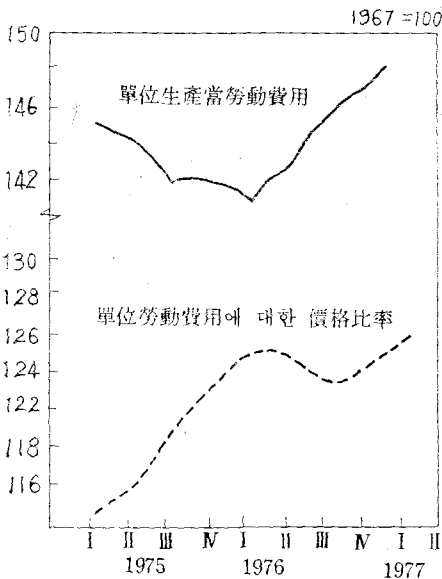
〈表-1〉 設備投資와 非農業部門의 디플레이터 推移 (1972=100)

	1973	1974	1975	1976
設備投資	104.0	116.0	132.1	138.2
非農業部門	104.1	115.8	127.6	133.8

係의 惡化는 單位生産當 勞動費用과 價格과의 關係에서도 나타나는데 우선 製造業의 경우 單位生産當 勞動費用은 1974년 이후 生産의 增大를 반영하여 계속 감소하여 오다가 1976년 2·4분기부터 上昇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1·4분기중에는 그 上昇勢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推移를 보이고 있는 勞動費用과 價格과의 比率를 보면 單位勞動費用에 대한 價格比率이 1975년 1·4분기 이후 계속 上昇하여 오다가 1976년 1·4~3·4분기중에는 同比率이 下落하였고 그후 다시 上昇하였으나 1977년 1·4분기중 수준이 지난 해 1·4분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그림-2〉 참조).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投入費用과 價格과의 比率關係의 惡化는 결과적으로 製造業의 單位販賣額收益率에서도 나타나 1976년 2·4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企業으로 하여금 新規投資의 擴張을 阻害한 요인이 되었다.

3) 政策의 不確實性

1970年初 닉슨 行政府가 物價統制에 失敗한 후



資料: 美商務省, 1977. 6. 6.

〈그림-2〉 勞動費用 및 價格推移

美國의 企業은 특히 民主黨政府下에서 物價統制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왔다.

카터 大統領은 一般物價에 대해서는 統制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개스, 油類 등에 관한 價格統制의 可能性은 항상 남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카터 行政府의 에너지 計劃도 政策의 不確實性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카터 行政府가 제안한 에너지 政策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에너지 節約部門에 대한 投資는 增大될 것이지만, 同 에너지 計劃이 기본적으로 消費節約에 力點을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 에너지 生産能力을 증대시킬 新規投資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더욱이 카터 行政府의 에너지 計劃이 議會에서 어떤 內容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不透明하므로 同計劃이 確定될 때까지 企業은 새로운 長期投資에 대해서 慎重을 기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III. 日本經濟에 있어서의 設備投資現況과 停滯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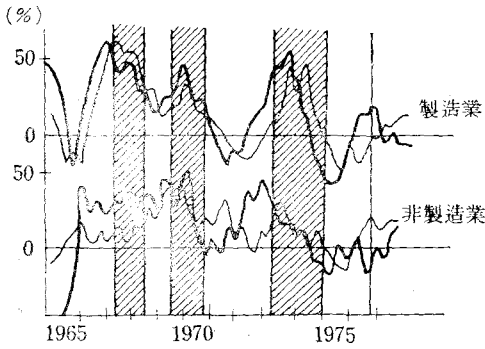
景氣가 最低點에 들어 갔던 것은 1975년 1·4분기였으나 그후 設備投資動向은 過去 景氣回復期의 設備投資(實質) 推移에서 보면 異例의으로 약하다. 종래에는 景氣가 最低點에 달하고부터 3個月 지나면 設備投資가 回復되었으나 이번에는 9個月 연속 減少를 지속하였으며 增加로 反轉된 때는 1976년 1·4분기였다. 그 후의 推移도 不振하여 同年 3·4분기의 設備投資額(實質)은 1975년 1·4분기(景氣의 最低前期)의 수준을 겨우 上廻하는 정도로 回復力은 지극히 약하였다.

과거 設備投資의 動向을 製造業, 非製造業別로 또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나누어 보면 1970~71년의 경우 設備投資 리드役은 非製造業의 中小企業이며 다음이 製造業의 中小企業으로 中小企業이 景氣를 리드했다. 大企業은 이후에 緩慢한 回復勢를 持續하였다.

이번의 回復期에서도 期待한대로 中小企業이 先導役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伸張率은 낮고 回復力의 鈍化를 나타내고 있다.

1. 日本에서의 設備投資 現況

원래 中小企業의 設備投資는 景氣에 敏感하며



註: ① 不況

② - 大企業, - 中小企業

資料: 法人企業統計季報

<그림-3> 日本에서의 設備投資 推移

需要追從型이다. 그런데 종래 供給先導形 投資를 하였던 大企業도 이러한 趨勢를 보이고 있어 注目된다. 中小企業 設備投資動向을 보면 1976년 9月 中旬 현재 前年同期比 14.2% 증가하여 2년 만에 증가세로 反轉하였다. 그러나 投資水準이 피크에 달했던 1973년에 비하면 20% 下廻하는 것으로 역시 回復力의 鈍化를 나타내고 있다.

設備投資의 內容은 建物 構築物, 機械 裝置의 投資가 伸張하여 合理化의 比率이 높아가고 있으나 土地는 減小하였고 車輛·運搬具 등은 微増하였다. 商業·서비스業의 1976년중 設備投資動向(支給 베이스)은 商業이 0.1% 증가, 서비스業이 5.9% 증가하였다. 이러한 伸張率은 1975년이 增加基調에 있었다고 하지만 個人消費의 停滯 등을 반영하여 鈍化하였다. 投資水準도 역시 1973년 피크보다 20%를 下廻하였다. 設備投資內容도 製造業과 大同小異한데 建物·構築物 및 機械器具 備品에의 投資가 증가하였고 土地 및 車輛·運搬具 등의 比重이 低下하였다. 이것은 既存設備의 擴充이 主가 되었으며 土地 등 先行投資指標의 擴大比率은 떨어졌다.

한편 1956년 이래 總資本 스톡의 伸張率 推移를 보면 全産業의 경우 1965~73年間 10%에 이룬 후 1975년은 7.4%로 下落하였다. 그 가운데 製造業은 6.7%였으며 이런 趨勢로 나간다면 1977년에는 5% 이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設備投資構成比를 國際적으로 보면 歐美主要國의 1971년중 實質 GNP 中에서 美國·英國이 각

01%, 캐나다·西獨·프랑스가 14%이고 1975年度の 日本은 歐美主要國의 構成比와 類似하나 國內資源이 缺乏하다는 點에서 보면 日本과 英國은 같은 條件에 있다. 만일 日本의 設備投資增加率이 5% 以下の 推移라면 日本은 英國型設備投資停滯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一部側에서 나오고 있다.

2. 停滯要因

1) 企業家行動의 變化

그러면 왜 設備投資의 回復力이 鈍化하고 있는가? 1973년 오일 쇼크 以前の 設備投資는 稼動率, 收益率 및 金利의 3個變數로 대부분 설명되어 왔다. 즉 稼動率이 上昇하고 收益率이 改善되며 金融이 緩和되어 金利가 下落하면 企業은 市場占有率의 競爭意識을 조정하여 設備投資를 주저하게 된다. 예를 들면 實質 GNP 成長率과 設備投資의 時差를 보면 分期(3個月)中の 設備投資는 70% 이상이 同期間 및 全分期의 GNP 成長率에 의해 說明된다. 最終需要가 증가하게 되면 곧 設備投資를 行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說明한바와 같이 過去の 設備投資回復力에도 어느 정도 달려 있다.

그러나 오일 쇼크 이후 企業行動은 急變하였다. 이미 以前과 같은 10% 前後의 高度成長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原油價格의 계속적인 引上과 世界經濟의 침체라는 惡條件이 겹쳐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나 많다. 이번 設備投資回復力의 鈍化는 稼動率, 收益率 및 金利라는 合理的인 三要素에 따른 것보다는 不確實性的의 增大가 企業信賴를 萎縮시킨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에 關係해서 오일 쇼크 이래의 設備投資와 GNP 成長率의 時差構造를 보면 一分期前의 GNP 成長率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오일 쇼크 이전과 변함이 없으나 2分期前의 GNP 成長率의 영향력이 두번째로 강력하게 설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3·4分期(9~12월) 前의 GNP 成長率의 영향력은 오일 쇼크 이전의 5%에서 20%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이 設備投資는 과거의 GNP 成長率에 크게 左右되는 것이 확실하다.

금반 景氣가 最低點에 돌입한 후 設備投資回復力이 鈍化된 것은 이러한 時差構造의 變化에 따

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技術革新의 不足

將來의 不確實性增大要因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技術革新의 부족이다. 日本의 技術革新은 거의 海外에서 導入하고 있으며 技術導入의 件數와 設備投資規模(1970년 기준)의 動向은 거의 平行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日本의 設備投資는 技術導入을 軸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技術導入이 1973년도에 피크를 이룬 것에 呼應하여 設備投資도 그해에 피크를 이루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面에서 획기적인 技術革新이 이루어지면 設備投資도 현재와 같이 不振하지는 않을 것이다. 技術革新의 부족은 설비의 經濟的 陳腐化를 遲延시키고 設備投資意慾을 相殺시킨다. 예를 들면 裝置産業의 경우 固定費를 절약하여 코스트 경쟁을 하였으나 原油價格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流動費의 비중이 크게 되어 設備投資의 인센티브는 약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오일 쇼크 이래 建設 코스트가 대폭 上昇한 위에 期待成長率의 低下에 따라 設備投資를 하여 採算이 맞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 設備投資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은 不確實性要因이 존재하였던 까닭에 企業收益의 回復이 그대로 設備投資를 자극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전과 같이 企業收益이 回復되면 ① 設備投資가 回復됨에 따라 生産財·投資財產業의 設備投資도 회복된다. 또 ② 賃金 上昇에 따른 個人消費의 자극이 消費財產業 및 非製造業의 收益을 改善시켜 이것이 消費財產業, 非製造業의 設備投資를 회복시킨다. 이러한 두가지 루트를 통해서 企業收益의 回復이 설비 투자를 자극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에 하나의 漏出(leakage) 要因이 생겨났다. 즉 오일 쇼크 이후 企業은 財務構造改善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선된 收益의 일부를 借入金 返濟에 적극적으로 充當하였기 때문이다.

IV. 歐洲諸國에 있어서의 設備投資現狀과 停滯要因

1. 歐洲 諸國에서의 設備投資 現況

英國産業의 固定投資는 1970년 不變價格으로 1961~65년이 79億파운드, 1966~70년이 94億파운드로 약 20% 증가하였으나 1971~75년은 93億파운드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 NIESR 報告書에 따르면 1976년의 投資額은 前年比 4% 감소하였으며 70年代에 들어와서 가장 낮았다. 특히 民間投資가 감소하여 製造業은 1970년의 피크時에 비해 22%나 대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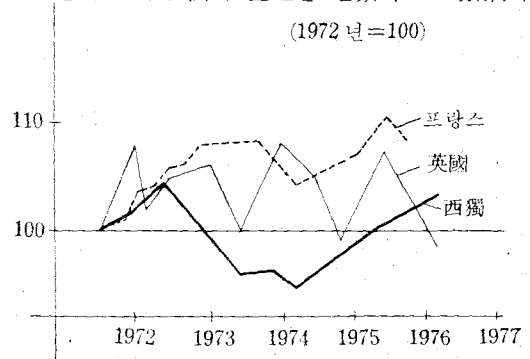
他國에 앞서 緊縮政策을 실시했던 西獨의 設備投資는 GNP 成長率보다 앞서 1973년 2·4분기에는 이미 鈍化되기 시작하여 2년간에 걸쳐 감소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設備投資增加率は 그 자체가 小幅的이었기 때문에 1974년에 2.1% 減少, 1975년에 1.3% 감소로 1966년 不況時의 下落幅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1976년에는 오히려 7% 增加로 反轉하였다.

不況이 늦게 찾아 왔던 프랑스는 總固定資本形成에서 보면 비교적 낮은 1974년 3·4분기를 피크로 하여 6個月後인 1975년 1·4분기에 小幅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民間住宅建設이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民間設備投資의 減少는 더욱 적었다고 하겠다.

2. 停滯要因

歐洲諸國에서의 設備投資가 停滯하고 있는 原因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國民所得中에서 차지하는 勞動所得分配率이 法人所得分配率에 비해 높은 반면 英國의 物價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物價는 抑制되었기 때문에 企業利潤이 壓迫을 받았다. 또 景氣가



<그림-4> 歐美諸國의 設備投資推移

〈表-2〉 各國의 法人所得分配率推移

(單位: %)

年 度	美 國	英 國	西 獨	日 本
6 5	13.6	14.4	34.2	10.3
6 6	13.3	13.1	33.4	11.8
6 7	12.1	13.1	33.2	13.0
6 8	12.0	12.9	35.2	14.8
6 9	10.6	11.9	34.0	14.7
7 0	8.5	11.0	32.5	15.4
7 1	9.0	11.8	30.9	13.9
7 2	9.7	12.0	30.8	12.2
7 3	9.3	11.5	29.7	8.1
7 4	7.5	8.0	28.4	8.6
7 5	7.6	6.8	28.6	8.5

註: 法人所得分配率 = $\frac{\text{法人所得}}{\text{國民所得}} \times 100$

最低點에 떨어지기 전에 상당의賃金引上이 行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石油價格이 急騰하여 企業收益이 극단적으로 惡化되었고 企業利潤이 회복되지 않아 設備投資의 回復을 지연시킨 한 要因이 되었다.

둘째 高인플레이션과 公共借入의 팽창으로 金利가 상승하였다. 즉 歐洲에서는 設備投資로 收益增大를 도모하기보다는 保有資金을 운용하여 債券購入 등에 應答하는 것이 收益展望에 좋았기 때문이다. 金利를 公定割引率水準에서 보면 例를 들어 베네룩스 三國의 公定割引率は 1974년 당시와 비하여 4~5% 포인트가 높았고 英國, 이탈리아 등에서는 7~15% 포인트가 높았다.

세계 消費者의 實質所得의 低下에 따른 需要伸張率의 減退이다. 즉 英國의 이코노미스트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個人貯蓄이 所得의 9%라고 假定하여도(현재는 12~13%임) 實質可處分所得이 금년 9월까지 억제된 상태이므로(所得政策 第2段階期間) 1977년 年間 消費者支出은 前年比 1.8% 減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네째 技術革新이 一段落되어 장래의 리드役을 맡은 商品 특히 消費財의 主宗品이 없다. 例를 들어 英國의 경우 景氣回復의 先導役割을 맡은 것은 住宅建設이었다. 그러나 國家의 經濟建設을 위하여 耐乏生活로 國民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가 계속되므로 특히 中流層 以上이 생활의 耐乏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금 景

氣 자극을 위한 住宅需要는 기대할 수 없다.

다섯째 景氣沈滯가 前例 없이 깊어 稼動率이 크게 떨어졌다. 稼動率의 下落은 新設備를 投資하는데에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歐洲共通的인 현상은 政治不安이 設備投資를 제어하는 요인이 되었다.

V. 主要先進國의 投資促進策

世界經濟는 石油危機 發生後 1974년에 들어와 同時的인 景氣後退局面에 돌입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各國의 設備投資도 景氣後退에 동반하여 減少勢로 轉換되었다.

그리하여 各國當局은 金融緩和를 점차 推進함과 동시에 財政面에서도 리플레 政策을 실시하였다. 그 一環으로 약화되었던 企業의 投資信賴를 鼓舞시키기 위하여 投資促進策이 1975년을 중심으로 하여 各國에서 廣範하게 실시되었다.

인플레이 再燃을 방지하기 위하여 今般의 金融緩和는 前例없이 신중한 것이었으나 短期金利는 西獨을 筆頭로(1974년 10월) 한 公定割引率引下 등 의 政策措置와 投資減少 및 在庫壓力에 따른 企業部門의 自發的 資金需要減退가 加勢하여 急騰포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長短期金利의 低下는 비교적 鈍化되었으며 특히 1975년 하반기에는 美國, 西獨 등에서 一時 強勢를 보였다. 이것은 인플레이 프리미엄을 덧붙인 외에 財務構造改善을 도모한 企業에 의한 社債發行增加, 그리고 國家, 地方公共團體의 巨額의 財政赤字를 調達하기 위하여 公債發行을 增加시킨데 기인하였다.

또한 各國이 실시한 連鎖的인 投資促進策은 設備投資의 直接的 需要效果보다는 景氣浮揚 및 雇傭效果에 力點을 두었으나 이번의 인플레이 急騰要因이 供給面에서의 隘路에 있었기 때문에 장래의 供給能力擴充도 크게 考慮한 것이라 하겠다.

主要内容은 投資稅扣除 또는 投資補助金(西獨, 美國,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네델란드 등), 法人稅輕減(美國, 英國, 西獨, 캐나다 등), 財政資金에 따른 長期特惠融資 및 法人稅納付延期(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등) 등이다. 이밖에 英國, 프랑스는 價格規制의 一部 緩和를 실시하였다.

以上の 조치는 設備投資 코스트의 直·間接的

<表-3>

最近 實施 또는 發表된 主要 先進國에서의 設備投資 促進策의 概要

國 名	投 資 促 進 策	企 業의 流 動性 · 收 益性改善措置	財 政 資 金 · 기 타
美 國	○ 投資稅額 控除率의 引上 (一般企業 7→10%, 公益事業 4→10%. 適用 期間은 當初 1975 年에 限하였으나 80년까지 延長)	○ 法人所得稅의 一部 引下 (適用 期間 75~77년) ○ 高失業地域 企業의 稅制上의 特惠措置 提案(1976년 一般敎書)	
英 國		○ 價格規制의 緩和(1974년 11월, 75년 4월, 76년 7월) ○ 法人稅 輕減措置의 實施 擴充 (在庫評價益의 課稅控除, 74년 11월, 76년 4월)	○ 新産業法案 發表(75년 1월) ○ 産業投資補助 制度의 擴充 (75년 10월) ○ 新設備工場의 建設資金 補助(失業對策의 一環, 75년 11월)
西 獨	○ 投資稅의 撤廢, 定率償却의 再開(73년 12월) ○ 投資補助金支給 (7.5%, 74년 12월~75년 6월 間에 發注된 投資財, 74년 12월)	○ 赤字企業에 對한 稅金還付措 置(76년 1월)	
프 랑 스	○ 設備投資에 對한 特別償却率의 期限(75년 6월) 前의 引上 (75년 3월) ○ 設備投資減稅實施(76년 1월초 까지 發注된 投資材의 경우 10% 稅額控除 75년 4월, 9월 擴充)	○ 景氣調整稅의 徵收免除 (75년 4월, 7월) ○ 法人稅 등 延納措置(75년 9월, 76년 4월 一部 再延納)	○ 特定投資材의 割賦販賣 條 件의 撤廢(75년 3월) ○ 設備投資金融의 特惠擴充 (75~76년)
이탈리아		○ 資產再評價	○ 財政資金特別融資制度 (75년 5월)
캐 나 다	○ 設備投資의 特別償却率 引上 (73년 4월) ○ 投資稅額 控除制度導入 (5%, 77년 7월까지, 75년 6월 發表)	○ 法人稅率引上	
벨 기 에	○ 投資減稅 (75년 6~12월 實施 된 新規設備投資의 경우, 그 一 部를 稅額控除(75년 5월))		
네델란드	○ 投資減稅(新規設備를 한 후 2 年間은 法人稅를 5~8% 輕減, 74년 3월), (産業用 新規設備 投資의 경우 75년에 限해 法人稅 減稅 74년 11월)		

引下, 企業의 流動性 · 收益性의 補填, 設備投資 調達の 圓滑化 등을 통해 設備投資促進에 기여하는 것이나 當面의 需要를 確保할 필요성 때문에 適用期間을 定하는 등 一時的 조치가 대부분인 것이 尤같이라 하겠다. 그리고 景氣回復期인 1976

년에 들어 와서도 美國에서는 投資稅控除가 延期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小規模이면서도 새로운 投資促進策을 실시하는 등 景氣回復의 關鍵으로서 또는 長期的인 物價安定策으로서 設備投資의 役割이 한층 重視되고 있다.